

# 수능 D-100일... 건강관리 최우선

## 전북교육청 “위대한 수험생들 적극 응원”... 대비전략 제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진행 수능 시행일 변경, 대입전형 일정 및 전형 방법의 변화 등으로 대입과 수능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해이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올해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100일 앞두고 집중해야 할 것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우선 이 시기에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건강관리를 꼽았다. 특히 수험생 스스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고위험군 시설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 위생에 신경쓰므로써 자칫 건강상의 이유로 불리한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수시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정시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이 절대적이므로 이에 대비한 수능 학습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지방 대학을 고려한 맞춤형 공부 필요=수능 공부는 지방 대학의 모집 단위에서 비중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 대학을 몇 개 선정해 해당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중치 등을 고려해 비중이 높은 영역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상위권 학생들은 변별력을 확보할 고난도 문제에 대비하고,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보다 다소 아쉬운 학생들은 출제경향과 유형을 꼼꼼히 점검해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 참고=올해 수능 시험도 EBS 수능교재 및 강의를 연계해 출제하는데 연계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다. 따라서 수능 준비에서는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또한 올해는 고3 수험생이나 N수생 모두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는 이를 고려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EBS 교재가 기본이 된 수능 학습이 필요하다.

▲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오답노트 활용=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 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기해야 하는 시기다. 다만 문제풀이도 그냥 정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교과서를 통해 기본 개념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 풀이를 통해 영역별로 주어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많이 하고 수능시험에 대한 실전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전북교육청에서는 수능 준비 외에도 9월 28일부터 시작되는 대입

수시모집 지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먼저 자신에게 경쟁력이 있는 전형요소와 대학별 모집단위를 찾고, 전년도 입시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학의 전형방법과 학과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전년도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학령인구의 감소를 감안한 분석도 필요하다. 개학 연기로 인해 진학 정보가 다소 부족하다면 '전북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http://iro.je.gakur>)의 '대입정보'를 적극 검색해 보는 것도 좋다. 각 대학의 입시동영상과 진학정보가 체계적으로 탑재돼 있으며, 전북 공사다리 TV를 통해 맞춤형 온라인 진학 동영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위대한 수험생들을 적극 응원한다”면서 “올해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 준비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수능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21-2022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수확대학 사업(이하 GKS 사업)에 11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 전주대, 외국인 장학생 수확대학 11년 연속 선정

### 유학생 지원 관리 체제 인정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21-2022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수확대학 사업(이하 GKS 사업)에 11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GKS 사업은 전 세계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우리나라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올해는 전국에서 4년제 40개교, 전문대 6개교가 선정됐다.

특히 전주대는 호스트패밀리, 전통 문화 체험, 유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유학생·한국어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체제를 인정받았다.

GSK 사업에 선발된 유학생은 한국어

연수 1년, 학사 4년, 석사 2년 또는 박사 3년 동안 장학금(학비 전액/최대 500만원), 양복항공료, 생활비(매월 90~100만원), 정착지원금(연구비, 논문 작성비, 보험료 등)을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류인영 국제교류팀장은 “다양한 국가의 우수한 국제학생을 유치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국제학생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성공적인 유학생 생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에는 약 13개 국가 1,500여 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GKS 사업을 통해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키르기스스탄 정부 초청 장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 “유교 관념 · 이데올로기 파편 조명”

### 전주대, 내일 온라인 학술대회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27일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수중)이 진행하는 이번 국내 학술대회는 경술궁지 이후 100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100년을 맞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100년 전 '국망'과 '합방'이라는 역사적 질곡 속에 함의돼 있던 유교 관념과 이데올로기의 파편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변수중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주대 설주희 교수의 사회로 총 5개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1 발제는 전주대 김동희 교수가 지역의 이데올로기 분석 방법으로 '대동합방론 이데올로기적 시나리오-천황상에 대한 유교적 환상 가로지르기'를 탐색하고, 고려대 이영식 교수가 토론한다.

제2 발제는 전주대 김명희 교수가 대동합방론의 출간할 때 '합방'에 대한 양계초의 인식과 조선 '국망'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양계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27일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초의 사상을 수용한 조선지식인의 태도를 고찰한다 이어 전남대 정혜리 교수가 토론을 담당한다.

제3 발제는 전주대 김윤희 교수가 '정합방과 춘추대의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친일매국적 행위로 간주된 '정합방' 찬성서의 국가단론의 의의와 유생들이 '정합방'을 춘추대의로 지칭한 것의 의미를 분석하며, 대전대 한

성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4 발제는 전주대 서정화 교수가 '유교단론의 자장(磁場)과 순국의 관계성-선비의 경륜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문을 통해 유가 사상에 내포된 순국 담론과 역사적 전통을 고찰한 뒤 독립운동가들의 자결 순국과의 관계를 탐색하며 독립기념관 흥동현 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

### 진로지도사 1급 자격과정 운영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홍성덕)는 24일부터 25일까지 교직원 대상 한국능력협회 진로지도사 1급 자격과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로지도 교수 및 관련 부서 직원들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대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교원의 역할 ▲진로상담 이론과 상담 프로세스의 이해 ▲기업의 인재상과 구직자가 생각하는 인재상 ▲진로상담 기법과 시뮬레이션 ▲직무 이해 및 정보검색방법 ▲실전취업 전략으로 구성, 진로개발부에서 지원 및 지도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이수 후 필기시험을 통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민간자격인 '진로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해 진로 취업 교과목 등 운영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덕 센터장은 “2학기 학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취업지도에 유기적 대응을 위해 이번 과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지역 고용환경 전문가 육성”

### 9월 4일까지 수강생 20명 모집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고용인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단(단장 채준호)이 지역 고용환경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일자리 담당자 육성에 나섰다.

올 6월 설립된 이 사업단은 전문성 있는 일자리 담당자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전북혁신일자리학교'를 마련,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2월까지 진행되는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과 지역 거버넌스 현황과 구성 기능 효과적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며, 모집인원은 20명이다. 자치단체 공무원과 사업수행기관 실무자 등 일자리 관련 분야 종사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국비를 지원받아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모집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인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단(063-219-56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준호 단장은 “이 과정은 지역 고용환경에 대한 전문적 이론과 현장 실무 교육을 체계화해 새로운 일자리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과정이다”며 “이를 통해 수강생들의 고용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 네트워크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